



제 11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

-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계획과 향후 방향 -



▲ 제 1 주제 주제발표 및 토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2년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계획과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 11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교육인적자원부·연세대학교·K-TV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생부 반영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선택형 수준별 학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 7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정책 포럼은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이 연계된 교육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대학입학 관계자와 고

등학교 진학지도 교사들이 함께 2005년도 대학입학전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제 1 주제 :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계획 주요사항과 과제

이날 첫 번째 주제인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계획 주요사항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은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은 그 체제나 전형요소의 측면에서 현재의 대학입학전형의 틀과 크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선택형 제 7차 교육과정을 반영하

여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의 소질과 특성, 그리고 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학들이 입학하여 수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력을 중시하고 있어서 소위 '3+1' 체제나 '2+1' 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있어서 우려도 없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대학들이 4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이유는 언어, 외국어, 수학 등의 기본적인 학력이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 점에서 기본적인 실력의 배양과 함께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 탐구영역을 선택하여 집중학습을 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2005학년도 대학입시전형 계획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 수능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3개 영역과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1개 영역을 선택하는 3+1식 수능 반영으로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증가하리라는 우려가 있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전 영역을 모두 준비하여야 하는 종전과 비교해 볼 때 수업부담이 오히려 어느 정도 경감되고,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특성과 관련된 영역들을 중심으로 심화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많다고 보았다.
- 제 7차 교육과정이 선택형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과목 편식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실시 초기에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해도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러한 추세가 정착되면 정상적인 교과운영을 통해 제 7차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선택형 수능에 따라 심화학습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진과목 수능보다는

선택형 수능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은 과목의 수능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교육비 증가는 오히려 억제될 수 있다는 견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 ▶ **잠실고등학교 김조영 교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수학능력시험 시기를 12월로 늦추고, 반영 방법도 대학입학 자격기준으로 삼되 그 기준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 대학별 전형의 완전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능력위주의 사회구현을 위해 학부모나 사회의 인식전환에 모두가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 ▶ **교육인적자원부 이걸우 학술학사지원과장**은 2005학년도에도 현행 대입지도의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학입학전형에 있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입시부정 방지, 최소한의 법령 및 원칙 고수 등 공정한 대학입학전형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대입관계자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 **경희대학교 이기태 입학관리처장**은 대학의 입장에서 부분영역반영을 활용한 2003, 2004학년도의 대입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 갈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과연 어느 정도를 활용하는가, 즉 반영 교과목의 수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했다. 우수한 학생 확보에 자신이 있는 대학은 전교과를, 그렇지 않은 대학에서는 부분 교과를 반영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2005년 대학입학전형의 보완 방안으로 수능시험을 주 전형요소로 하지 않고 자격요건



▲ 제2주제 주제발표 및 토론

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 방안을 서울의 주요 대학이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제 2주제 : 2005학년도 대입제도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과제

두 번째 주제인 "2005학년도 대입제도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경북고등학교 이상갑 교장은 교육과정 편성 기준으로 보아 학생 선택권을 무제한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과정 개설과 교과 집중이수를 위한 선택중심 교육과정(안) 설계를 제안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면서 학생의 학습부담을 덜어주는 입시제도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다음의 몇 가지 점에 유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수능 및 학생부에서 가급적 모집 단위별로 특정한 과목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계열을 넘나드는 교과목의 이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테면, 이공계열의 과목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인문 사회 계열 교과목과다한 이수요구는 재고되어야 한다.
-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학생부의 내신 반영에는 출결, 봉사활동, 특별활동 등의 비교과 영역 반영 비중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수능 5개 영역 중에서 계열성을 고려하여 '2+1' 정도의 영역을 반영하도록 권장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안을 존중하여 각 대학에서는 수능 반영 영역을 축소하기를 바란다. 즉,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언어, 외국어, 사탐 정도, 이공계열에서는 언어, 수탐, 과탐 정도를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 입시의 다양화 측면에서 수시 모집의 확대는

찬성하되, 심층면접이나 논술의 반영은 사교육비 증가나 학생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출제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별전형의 경우는 정교한 연구를 거쳐서 영역의 선택이나 기회의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하며, 입학 후의 적응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제시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대학별 입시 전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일선 학교의 제 7차 교육과정의 정착 및 충실한 운영을 고려하여 계속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친 전형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 ▶ 대한매일 박홍기 차장은 대입의 전형이 다양화되는 만큼 사교육시장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우려하면서 제 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반영된 2005학년도 대입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려면 고교의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대학들은 현 상황에서 2005학년도의 대입 세부계획을 가급적 빨리 발표하여 학생들의 혼란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기에 앞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다

양한 진로를 알려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했다.

- ▶ 보성고 황인표 교사는 제 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선택과목제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곡된 선택의 양산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고, 다음으로 수능 선택제도의 고착화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안에 대한 개선에 대한 제안으로 첫째, 사회탐구, 과학 탐구에서의 과목 배정의 문제로 학생의 선택 편식의 문제, 둘째, 대학들은 소위 기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영·수 중심의 영역을 필수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지적, 셋째, 심화 선택 과목 중심의 수능 출제로 인해서 기본 공통 과목 교육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 ▶ 전북대 김진기 교무연구처장은 학생의 선택적 교육과정을 강조한 나머지 지나친 산술적인 수학능력시험의 축소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학생부의 반영계획 중 학년별 과목의 반영 비중의 문제와 학생부 반영에서 같은 교과내에서도 이수 단위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나 정확한 안내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